

2025 새해 이렇게 **이상의 함평군수**

# “군민과 함께 서남권 중심도시 도약 원년 만들겠다”



### 금호타이어 이전 본궤도 오른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 거점 육성 보건지소 신축·농촌왕진버스 확대 운영 등 군민 건강관리 만전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1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겠다”라며 “군민이 살기 좋은 함평군을 만들고, 군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나해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으로 함평군이 새롭게 도약한 해였다”며 “전남도와 합의한 1조8500억원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산악녹지·미래산업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군수는 “함평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해외 시장에 알리고자 6개국 식품박람회 직접 참여하였으며,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K-HC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을 조직했다”며 “국제식품박람

회에 지역 농특산물을 출품함은 물론, 각국 한인회에 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유통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음 시도한 ‘함평 겨울밤 빛축제’에 대해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 기간을 예정보다 1주일 더 연장해 8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 비수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함평군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새해 역점 추진할 현안들을 밝혔다.

미래차 산업의 거점이 될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공사가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입주계약이 체결되면서 공장 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차 부품 전환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남도와 함께 미

래차 소부장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도-나산 간 광역도로, 신광-해보 간 지방도 838호선 등 연계 물류망을 조속히 확충하여 미래차 산업을 함평의 주력산업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 군수는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식품박람회 참석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까지 책임지는 ‘함평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세계적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나산강 공공야영장, 사포관광단지 개발, 엘리체CC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 농토피아 분양, 엑스포공원 내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 등 머물고 즐기는 관광시설과 다양한 체험학습 콘텐츠를 확대한다.

여기에 해양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센터 건립 또한 진행 중이며, 해안일주도로 개설도 9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다.

이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

육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해 함평실내수영장 및 월야실내체육관 준공과 더불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또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군민 맞춤형 군민복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류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치매치료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독거노인 AI 반려인형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동부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에 이어 손불면, 신광면 등 서부권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농촌왕진버스와 건강드림 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군민 건강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끝으로 이상의 함평군수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다”며 “군민이 살기 좋은 함평군을 만들고, 군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시, 배 농가 ‘햇볕 데임 피해’ 긴급 지원...17억원 투입

### 피해 과원 1ha당 10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2월 지급

지난해 여름 역대급 최장 폭염의 여파로 ‘일소(日燒햇볕 데임) 피해’를 입은 나주배 농가에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일소 피해는 섭씨 30도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에 의해 과실 표면이 강한 햇볕에 그을려 타들어가는 증상이다. 과실이 쪼개지거나 심하면 과사로 이어져 상품 가치를 잃게 된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마련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 17억원(도비 50%·시비 50%)을 투입해 일소 피해 과원 1ha당 100만원을 2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일소 피해가 발생한 배 농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정부에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재해 인정과 농자재 구입비·복구비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하지만 배 수확이 끝나고 봉지 탈봉 후 피해 사실이 확인돼 재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초 나주배 생산량은 약 4만3000t으로 예상했으나 일소 피해 여파로 수확량이 3만6000t 감소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농가당 평균 20~30%이지만 40%를 웃도는 극심한 피해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이 지난해 9월 일소피해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를 본 농가들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나주시는 배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한 끝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게 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작물

재해보험 규정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많다는 점에서 재해보험 약관 개선이 시급하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정책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성군, 24일까지 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 20% 할인...수도권 등 동시진행

장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우수 농특산물 설맞이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행사 기간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https://jangseongmall.co.kr)에선 전품목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송파구청·양천구청’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선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농특산물을 착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에서 오는 24~28일 이틀간 A·B관 통로 2층 이벤트홀에서 직거래 행사가 열린다.

품목은 장성 대표 농산물인 사과, 배, 꽃감을 비롯해 브랜드쌀, 감치, 꿀, 가공식품, 고기류 등 다채롭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장성 먹거리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구매·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 고인돌가을꽃축제 ‘축제 콘텐츠’ 대상

### ‘고인돌 책방’ 등 콘셉트 호평

화순 고인돌가을꽃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화순군은 지난 15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은 전국에서 개최된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 7개 부문 35개 축제를 선정하는 상이다.

화순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에서 가을꽃축제를 개최해 자연 속의 휴식과 독서

라는 콘셉트의 ‘고인돌 책방’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인 점을 인정받아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조형제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화순군의 대표 축제가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에 선정돼 의미가 깊다”며 “많은 방문객이 화순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축제 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오는 2월25일 서울 피크앤파크 컨벤션(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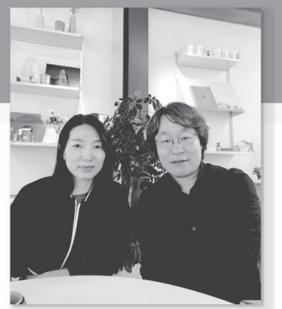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